

## 방통위, 제3회 「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」 개최

- 대만, 베트남, 영국, 일본 등 방송 제작 관계자 참여 -  
- 방통위 “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및 공동제작 등 해외진출 적극 지원”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, 이하 ‘방통위’)는 지역방송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제3회 「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」를 11월 6일(수) 골든서울호텔에서 개최하였다.

이번 행사는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우수 프로그램의 세계시장 유통과 지역-해외방송사 간 콘텐츠 공동제작 등 협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국내 20개 지역방송사와 해외 4개국\* 10개 방송 관계사가 참여하였다.

\* 대만(HAKKA TV, PTS Foundation, Magichour Film Co.), 베트남(Vnews, VTV), 영국(TVF International), 일본(TV Miyajaki, TV Aichi, Osaka TV, JCTV)

이날 행사에서는 방통위의 제작지원을 받은 콘텐츠를 소개한 후 부산 MBC와 KNN의 공동제작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참가 방송사별 대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시간과 함께 교류를 희망하는 방송사 간 협의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되었다.

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“이 행사를 통해 세계 우수 방송사 간 우수 콘텐츠 공동제작과 유통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”며 “방통위는 앞으로도 지역방송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방송정책국	책임자	과 장	김미정 (02-2110-1450)
	지역미디어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용원 (02-2110-1417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**

